

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, 청용저수지 녹조 발생 전 친환경 경 제거제 600kg 선제 살포

[김준혁]

폭염·가뭄으로 수온 상승...전조증상 확인 즉시 보트 이용 방제 작업
 주 2~3회 예찰·수질 모니터링..."사후 대응 아닌 선제 예방 관리"



해남완도지사(지사장 정경훈)는 지난 20일 완도군 청용저수지에 보트를 이용해 친환경 녹
 조 제거제 600kg을 살포했다. [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]

[풀리뉴스 김준혁(=호남) 기자] 녹조가 피어오르기 전에 먼저 손을 썼다. 한국농어촌공사
 해남완도지사가 폭염으로 저수지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 발생 전조증상이 확인되자 곧바
 로 방제 작업에 나섰다.

해남완도지사(지사장 정경훈)는 지난 20일 완도군 청용저수지에 보트를 이용해 친환경 녹
 조 제거제 600kg을 살포했다. 녹조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전 선제 조치를 취해 농업용수
 수질을 사전에 지키겠다는 판단에서다.

남부지방의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저수지 수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문제
 의 배경이다. 수온이 높아지면 남조류가 급증하며 녹조가 발생하는데 한번 번지면 수질
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. 이에 해남완도지사는 앞으로 주 2~3회 간격으로 저수
 지 녹조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제거제를 살포하는 체계를 유지
 할 방침이다.

정경훈 지사장은 "사후적 대응보다는 선제적 예방관리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
 말했다.